

감성을 적시네.....

박승원의 바이올린 독주회



오늘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박승원 바이올린독주회가 15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연주 레퍼토리는 슈베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네 라장조', 이자이의 '바이올린 솔로를 위한 소나타 2번' 중 '강박'과 '우울', 브람스의 'F-A-E 소나타' 중 '스케르췌',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장조' 등이다.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예비과를 거쳐 현재 석사 과정에 재학중인 박씨는 광주시향 등과 협연 무대를 가진 바 있다.

피아노 협연은 오스트리아 프라이너콘서바토orium에 재학중인 전문 반주는 김민주씨다. 박승원(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지휘과 석사 과정)씨가 해설한다. 전석 1만원. 문의 010-3625-511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피아니스트 올레그 폴리안스키 초대



'천원의 낭만' 오늘 광주문예회관

'행복한 문화 충전-천원의 낭만' 9월 연주회가 1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의 초대 손님은 피아니스트 올레그 폴리안스키다.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몬트리올 콩쿠르, 동경 콩쿠르 등에서 수상한 폴리안스키는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으며 현재 독일 쾰른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다.

연주 레퍼토리는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 '아베마리아', 라흐마니노프의 '소나타 2번'을 연주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이봉기씨가 함께 출연,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를 들려준다.

천원의 낭만은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공연장 문턱을 낮춰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선사하는 프로그램으로 1000원을 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향,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공연



내일 부산문예회관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이현세·사진)이 올해 두번째 원정연주회에 나선다.

지난 4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교향악축제에 참여했던 광주시향은 16일(오후 7시30분 부산문예회관 대극장) 부산에서 공연을 갖는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초청을 받은 시향은 이날 공연에서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을 연주한다.

또 베토벤의 '삼중협주곡 작품 56' 협연 무대도 마련돼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발레리 소콜로프,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이조토프, 첼리스트 알렉세이 사드리니가 협연자로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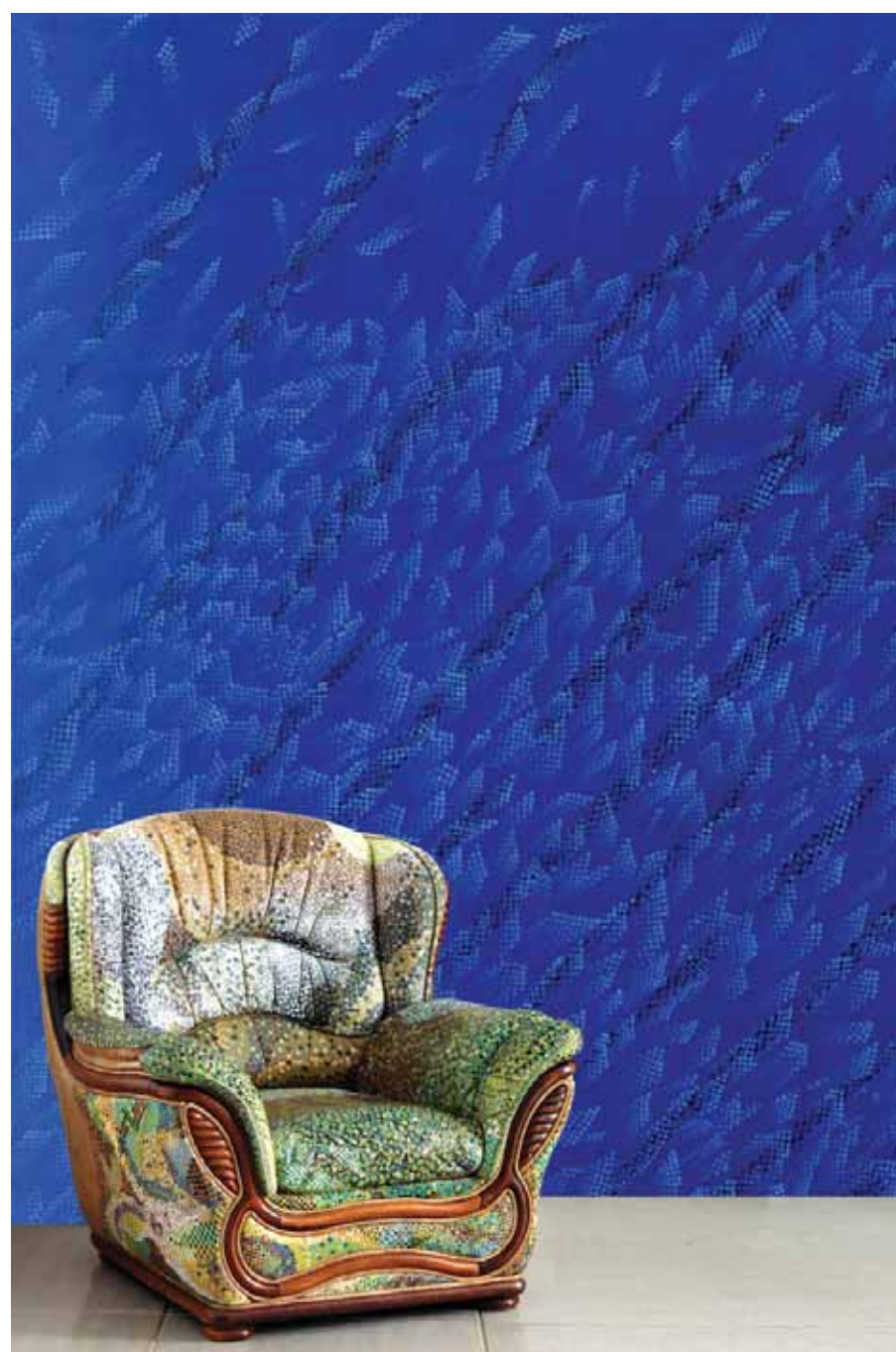
지난 2010년 시작된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국내외 유명 교향악단과 독주자들이 참여하는 음악 축제로 오는 20일까지 계속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미술관, 캔버스가 되다



정승규 관장이 무등산을 그린 '작은 것이 큰 것이다'(2012)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정승규 관장의 설치작 '휴식'(약·2010)과 평면작 '자유로운 영혼'(2012).

무등현대미술관 정승규전... '50년 화업' 갈무리 회화·설치·소품 등 건물 내·외부에 100여점

11월 20일까지

무등산 자락 의재로 중심에 있는 무등현대미술관이 하나의 캔버스로 변모했다. 미술관 내외부에는 설치 작품들이 놓였고, 건물 1, 2층에는 작품과 함께 다양한 이미지가 입혀졌다.

지난 2007년 이 미술관을 개관한 정승규(여·72) 관장이 본인의 50년 화업을 갈무리하는 전시를 준비하면서 정승규가 여성미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올해의 작가로 초대전을 열어 준 작가다.

지난 3일 개막한 정관장의 14번째 개인전 '다 관찰을 거야'가 오는 11월 20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열린다. 전시는 김노암 문화역서술284 예술감독이 총괄기획했다.

14일 미술관에서 만난 정 관장은 "지난 반세기 그림 인생을 돌아본 전시"라며 "미술관 모든 공간을 하나의 캔버스로 생각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는 근작 40여 점을 포함해 80년부터 최근까지의 회화, 설치, 소품 등 정 관장의 작가로서의 삶을 아우르는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1층 전시장에서는 흑백과 청색이 운율을 만들어 내고, 그 위에 녹색이 포인트를 더한다. 흰색과 흑색의 점들이 중복되고, 반복되면서 만들어 내는 작가의 근작들은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면 더욱 독특하게 그려지고 있다. 각각의 점들은 70평생 작가의 삶과 시간이 녹아 있다.

미술관이 놓인 무등산의 푸근한 모습도 작품에 담겼다. 길의 흐름과 생명력, 사람들의 모습이 알기설기 이어진 모습이다. 전체적인 작품들에서는 꽃과 나무 등 형상들은 물론 아픔, 혼돈, 기쁨 등 다양한 감정들도 느껴진다.

"마음 상태에 따라 꽃과 혼돈이 교차하게 된다. 사람이 항상 부족한 것을 찾듯이 그림에서도 그걸 찾으면 되죠. 그동안 '세월'이라는 것에 많이 배웠네요. 그래서 드라마틱한 인생은 없고, 하나하나 길을 걸으면 서 대상과 삶에 충실하다 보면 된다

는 것을 작품에 담고 싶었습니다." 신작들 옆으로는 정 관장의 50년 화업의 결과물들이 자리하고 있다. 정 관장의 작품세계는 80년대 초 구상미술을 시작으로 90년대 인물화를 주제로 한 표현주의 미술로 이어진다.

이후 90년대 말 작가는 전환기를 맞았다. '모성'과 '환희'를 키워드로 우리 전통 조각보에서 기원한 화사하면서도 단순한 채색과 조형을 추상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차마꼭처럼 누구나 품을 수 있을 것만 같은 포근한 작품들이다.

이후 정체성에 대한 고민 끝에 현대미술에 눈을 뜬 정 관장은 점으로 삶을 그렸다. 어머니가 조각보를 하나하나 잇듯 작가는 점들을 이으면 서 정체성을 되찾았다.

2층으로 오르는 중간에는 그의 작품들이 벽면에 그려져 있다. 계단 하나도 쉽게 지나칠 수 없도록 한 정 관장의 배려다. 2층 전시장에서는 '환희'를 키워드로 한 정 관장의 작품과 함께 임지순 선생의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정 관장이 그동안의 전시 기록들을 모아 놓으면서 가져다 놓은 소중한 작품 3점 중 하나로 70년도에 추석 인사를 갔을 때 임지순 선생이 그려준 작품이다.

초등학교 때 처음 붓을 잡고, 고등학교 때 오승우 선생 문하에서 그림을 배운 정 관장은 이후 대학에서 임지순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정 관장은 "그때 임지순 선생님은 항상 제 작품을 보면서 '보다 나은 세계가 없다. 좀더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다"며 "지난 평생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작품을 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미술관을 운영해 온 정 관장은 올해는 미술관 뒤편에 레지던시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등 신예작가들의 산파역할을 하고 있다.

정 관장은 "젊은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생각해보길 꺼려도 없이 전시회를 쫓아다니지 않았으면 한다"며 "붓을 들고 지난 50년 동안 미술인이자 아내, 어머니로 살아온 긴장된 삶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다시금 눈앞에 펼쳐진다"고 말했다.

문의 062-223-667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길이 ~500cm, 10T 통나무 1개

식탁 · 좌탁 · 테이블 · TV · 침대 · 책상

통원목가구 저가 소나무가 아닙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광주최초판매 (가정용/인테리어) 헐리웃/국내배우 인기상품 ☎1899-0240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